두 가지 악

(예레미야 2:4-13)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크고, 작은 전환점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선교를 보면 남미에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해로 기록된다고 생각됩니다. 쿠바에서 시작되었고, 니카라과에 이어 12월에는 과테말라에서 렘넌트 집회가 성취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온두라스에서도 렘넌트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미를 향해 '100팀'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인 바울 팀의 전도 그림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잡은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며, 이것이 나의 전도가 될 것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그림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전도 그림과 통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잡았기 때문에 평안하며, 정복하고, 소망을 갖고 가게 되고, 힘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100팀이라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알론소 목사님을 온두라스에 한 달간 파송시키게 됩니다. 온두라스의 6개 도시를 돌고, 20여 곳의 교회를 돌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두라스의 Jose Gonzales 목사님은 이 말씀 운동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운동에 열성이십니다. 또한 기존 목사님들과 단체가 되어 있는 분들이 좋은 관계로서의 문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온두라스에 National Conference를 계획하고 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리카르도 목사님의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났었습니다. 저희가 돌아온 후, 제 ZOOM을 써도 되는지 여쭤보셨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낙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멕시코 장로 교단의 이스라엘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장로교 목사님들과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규모를 키우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전보다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메시지로 나가는 단어가 다르며, 제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확실히 믿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메시지를 듣는데, 3시대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3시대 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 없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3시대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3 뜰. 이방인의 뜰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아닌데 왜 중요해지겠습니까? 통하면 통한 만큼 문을 열어주시고, 하고 싶지 않아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인데, 치유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치유 사명자 대회' 또한 여기에서 시작된 훈련입니다. 후대가 없으면 이미 죽은 교회이며, 그것이 아이들의 뜰입니다.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금토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결국 '묵상 시대'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속에서 묵상이 없으면 진행은 없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잡고 '금토일 시대'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우선 교역자 회의를 했습니다. 주로 렘넌트, 청년들일테니 대상자가 몇 명이며, 어떻게 여기에 모이게 할 것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준비했고, 앞으로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범위를 좁히면서 지난주에는 부서별로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계신 교역자 세 분과 장로님 세 분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용호 장로님이 AI를 이용하여 3시대와 관련된 메시지를 모두 모아오셨는데, 오늘은 그것을 읽으려 합니다. 장로, 교역자 전체,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읽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여야 하는 렘넌트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으나 앞으로 메시지 통하여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과 봉사 부탁드립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300%의 정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도합니다.

1. 2가지 악

하나님이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첫 말씀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그들은 그 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일어난 죄악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웅덩이를 파는 것은 좋으나 나와 상관없이 멋대로 판 웅덩이였다. 그래서 열심히 팠으나 아무 소용 없이 터진 웅덩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였을 것이나 결국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었고, 돈과 시간만 날리는 것이 되는, 터진 웅덩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한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불신자 중에는 이런 방법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대를 하며 판 웅덩이였을 것이고, 생수의 우물이 되는 웅덩이가 될 것이라 기대했

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물이 아닌 터진 웅덩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물이 나와도 가두지 못하니 결론적으로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좋으나 결과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운명이란 말이 이것입니다. 알지만 안되는 것입니다. 있는데, 남는 게 없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결과도 있지만 남는 게 없는 것. 눈에 보이는데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게,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웅덩이를 아무리 파도 상관 없고, 거기서 생수가 나와도 상관없는 게 터져버리는 웅덩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역전하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 웅덩이를 스스로 파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답이 있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기록이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터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누리는 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다른 것 필요없고 영적인 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 역전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것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냥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단 하나로 인생 모든 것의 답이 되고, 작품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1:13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안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줄이 잡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리든 안 들리든 일단 들어야 합니다. 출발하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어느 날 답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6절 마지막에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찾지 않고 스스로 하냐, 왜 터진 웅덩이를 파기만 하냐'는 것입니다. 남미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림으로 들고 갑니다. 그냥 내 머리에만 들어있는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표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출발해 로마까지 가는 그림. 겉으로 보면 똑같을 수 있으나 속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냐 없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천지개벽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천지개벽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드디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전에는 믿는 사람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속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말씀으로 합니다. 무슨 치유가 필요한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구분이 없는 원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웅덩이를 팔 일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말을 웅덩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시기까지 기다리며, 그것을 기다리려면 우리에겐 답으로 확신하는 언약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완벽한 응답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치유와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얻는 힘이 다른 힘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출발은 믿음이고, 복음을 누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훈련 메시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들어온 말씀 한마디가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웅덩이를 파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수로 넘쳐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샘물을 평생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 소원, 이유가 같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생 근본 치유입니다. 이것이 치유되면 인생 모든 것 치유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로 모든 것 끝내셨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가 직접 해서 받는 것은 이류입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며,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게 일류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되어지는 응답이 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터진 우물이 없게 됩니다. 이사야 55:3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면 영이 살고,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온유한 자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 중에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없게 됩니다. 생수의 우물이 되고, 터진 웅덩이를 역전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이뤄집니다. 내 영을 살리는 비밀은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눈이 열리고, 하나가 됩니다. 요셉은 이 영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답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웅덩이는 팝니다. 오늘도 파고, 내일도 팔 것입니다. 내가 판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위해 웅덩이를 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 생명의 우물을 파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야 완전 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탄을 완전 100%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